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코스닥		
6579.48 (+16.76)	790.21 (-13.77)		
↓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888 (-0.042)	1357.95 (-10.75)		



한성숙 국무총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9개 공공기관 감축… 법무부·성평등부 이전

행정·공공기관 개혁방안
발전 5사, 25년만에 ‘단일법인’
LH, 개발·주거복지 조직 분리
수도권 공공기관 ‘잔류 최소화’
4분기 계획 확정, 내년부터 이전

정부가 국가복합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고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시행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세종시로 이전하고, 발전 5사는 25년 만에 단일 법인으로 재통합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전담 조직으로 분리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 및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방안은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다. 핵심축은 전략적 구조개혁(15개 감축),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감축),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 통합(83개 감축)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다. 2001년 전력부문 경쟁 도입을 위해 분할됐던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발전 5사는 25년 만에 (가칭) ‘한국발전’으로 합친다. 분산돼 있던 연간 500억원 규모의 R&D와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 에너지 전환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돼 석유·가스 수급과 자원 탐사를 일원화한다. 알뜰주유소 등 유통 업무는 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되며,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법 개정을 거쳐 청산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 단일 법인

하의 권역별 지사 체제로 전환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도 하나로 합쳐져 고속철도 운영 체계가 일원화된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LH는 개발과 복지의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전담하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쪼개진다. 개발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환류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유사·중복 및 소규모 기관 개편도 병행된다.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통합된다. 캠프FMC 등 금융 공공기관 시설관리 자회사 5곳은 ‘정책금융FMC’로 수평 통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소재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올 4분기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내년부터 민간건물 입차 등을 통해 선도이전을 즉시 추진하며, 법무부·성평등부 등 중앙행정기관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을 본격화한다.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정부는 임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완벽히 보장하고, 보수 체계 및 복리후생 인센티브를 마련해 처우 저하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성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핵심 역량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민첩하고 경쟁력 있는 공공 부문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전국 평균나이 46.2세 15년 새 7.7살 먹었다

이제 거주민 평균나이가 30대인 지역은 전국에 사실상 없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0대였던 세종도 끝내 지난달 말일부로 40대를 찍었다. 전국적으로 국민 평균나이는 15년 만에 여덟 살 가까이 많아졌다. 40대 후반이 코앞이고 이르면 2030년대 초 50세를 넘어서는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세종 거주민(39만 명) 평균연령은 40.0세로 집계됐다. 세종은 그 전달인 7월까지 전국 16개 주요 시·도 가운데 유일무이한 ‘30대 지역’이었다. 마흔 미만 지역은 이제 없고 앞으로는 없을 확률이 커졌다.

8월 전국 평균연령은 46.2세였다. 15년 전인 2011년 8월(38.5세)과 비교해 7.7세 늘었다. 연평균 0.51살씩 더 많아진 셈이다. 경북이 49.7세로 거주민 나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49.1세, 전북 49.0세, 부산 48.1세, 경남 47.7세, 전남광주 47.7세 순으로 많았다.

행정안전부, 8월 기준 통계
세종 거주민 평균 연령 40.0세
16개 시·도 ‘30대 지역’ 사라져
경북도 49.7세, 나이 가장 많아

지역별로,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전남이 49.9세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광주와의 통합에 따라 7월(47.6세)부터 순위가 내려앉았고 경남과 함께 5~6위에 자리하게 됐다.

서울은 8월 기준 전국평균을 밑도는 45.6세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젊은 지역 순위는 세종에 이어 경기(44.5세), 대전(44.8세), 인천(45.2세), 울산(45.4세) 순이었다.

남녀 성별로는 아직 30대가 남아 있다. 세종 남성 거주민이 39.4세였다. 세종 여성이 40.5세로 세종 평균 ‘마흔’ 진입을 이끌었다.

여성 중 경북(51.5세)과 강원(50.6세), 전북(50.5세) 거주민은 이미 쉰 살을 넘어서었다. 6월까지인 전남 여성이 51.5세로 당시의 경북 여성(51.4세)보다 많았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최고령 위치를 경북에 넘겼다.

전국 거주민은 이제 평균 쉰 살을 넘보고 있다. 연평균 0.51세 증가를 산술적으로 대입하면 이르면 7년 내, 늦어도 8년 안에 50세에 도달한다. 예상 시점은 2033~2034년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2031~2032년쯤이 될 가능성도 높다.

행안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0대 인구(471만 명)가 10대 인구(461만 명)보다 10만 명 더 많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metro

서버용 D램 물량 부족… 삼성·SK, 생산능력 키운다

HBM 생산확대에 공급여력 하락
3분기 D램 가격 18% 상승 전망

인공지능(AI) 서버용 D램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로 일반 D램 공급 여력이 줄어들고 서버용 수요도 중·저용량 제품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능력 확대와 선단 공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는 올해 3분기 서버 D램 고정 거래가격이 전분기 대비 13~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공급사와 서버 OEM 업체들은 지난 8월 협상 과정에서 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분기 대비 15~20% 인상된 가격 수준에서 거래를 확정했다. 9월 거래가격도 전월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버 D램 수요는 중·저용량 제품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들은 기존 96~128GB

제품 중심에서 32~64GB로 수요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메모리 비용 부담을 낮추고 완제품 서버 출하량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수요가 이동하면서 32~64GB 제품의 공급도 빠듯해지고 있다. D램익스체인지는

공급사들이 공급 부족이 두드러지는 32GB 모듈 가격을 높여 평균판매가격(ASP)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128GB와 64GB 모듈의 용량당 가격 격차도 올해 2분기 22%에서 최근 15%로 축소됐다.

HBM 생산 확대도 일반 D램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HBM 생산을 늘리면서 일반 D램에 배정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D램익스체인지는 HBM 물량 확대에 따른 일반 D램 생산능력 잠식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 서버 D램 공급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김민석 “용혜인 논란, 깊이 생각… 국민 판단 존중해”
/사진 뉴시스
▲안철수 “李, 용혜인 겹적 알고도 지명했나…철회해야”

▲오세훈 “처음으로 불꽃축제 이틀 진행…안전 철저 관리”
▲금융노조 4일 총파업…“지방이전은 국가 경쟁력 훼손”

▲20k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에 제어장비 구축 의무화
▲전기차 충전 요금, 주말·공휴일 낮엔 반값…5일 시작